

에드먼튼 소망교회 Edmonton So-mang Church

천로역정 The Pilgrim's Progress

2021 04 14



정승희

이책을 읽고 은혜와 감명을 받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분노하시겠지만, 교육된 문학적지식과 그문학을 즐기는 저로서는 이책은 저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줄 한줄 정성들여 해석하시고 묵상하신 독서모임 성도님들의 연관된 간증이 더 은혜로웠습니다.

이책은 독자인 저에게 어떠한 상상력과 의문점, 또는 궁금증을 주지않았습니다. 이렇게 저에게서 흥미를 몰살해간 원인은 너무도 쉽게 이해하게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순종’ 이라 일컫는 사람이 ‘무지’한일을 한다던가 ‘나태’ ‘의심’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을 읽은 듯 작가는 후반부에 ‘수다쟁이’를 등장시킵니다. 그럴듯하게 반박과 설득력을 겸한 인물이지만 이름이 다한 듯 결국 악인일수 밖에 없는 ‘수다쟁이’. 하하하! 존번연이 독자에게 “Argue” 하지말라는 거지요. 저의 안에는 이 글의 모든 등장인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존번연의 신앙심은 절대로 의심하지않습니다. 어찌 감히 그의 믿음을 논하겠습니까? 어쩌면... 존이 하늘에서 저 때문에 울수도 있겠네요.

정환우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크리스천이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있을 때, 크리스천이 절망의 생각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자기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안좋은 생각은 빠르게 커져만 가고 멈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책속에서 소망의 도움으로 절망의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고 나도 삶속에서 누군가의 절망의 생각을 끊어 밝은 빛으로 나올수 있도록 도울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책 전반에 걸쳐 특별한 은혜가 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으나, 크리스천의 순례의 여정을 보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진하게 그냥 착하게만 살아서는 실족하고 넘어질수 밖에 없는 부족한 저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면서 치열하게 신앙 생활을 살아 내야겠다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은주

크리스천의 순례의 길을 통해 믿음의 삶의 여정을 묘사한 이야기가 흥미롭고 공감이 되었다. 쉬운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깊이 있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기했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룬 고전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은 십자가언덕에서 옥죄던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도 어깨의 끈이 느슨해지더니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갔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크리스천은 기쁨에 겨워 흥얼거렸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 내게 쉼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는 한동안 서서 감격한 표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십자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 뺨을 적셨다.

나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다. 나의 죄로 인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주님을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였다.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날 위해 수치를 당하신 분을 찬양하네. 본문의 이구절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며 나의 찬양이 되리라 생각한다.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리스천의 인생의 여정에 풍성하고 넘치는 것을 보며 은혜가 되었다. 나의 믿음의 삶, 천국으로 향해가는 순례길에도 동일하게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한다. 죄와 싸우고 말씀과 기도로 내게 주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 갈 때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모진 유혹과 핍박과 세상 집착과 절망 의심에서 그리고 소심과 죄책감으로부터 지키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큰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

독서모임을 통해 귀한 간증과 묵상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미자

기독교 고전이라 일컬어지고 성경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라는 "천로역정"을 독서모임에서 읽고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뿌듯함 가득하다.

대화체의 구성으로 각각의 이름을 크리스천, 신실, 돈사랑, 세상집착, 구두쇠, 소망, 무지 등 이름자체에 양미자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책을 접한 나에게는 마치 "나의 거울(?)"이라는 부제를 달게 한 책이다.

등장인물의 이름 중 세상집착에 대해 나를 좀 더 깊이 성찰하게 한 이름 "세상집착"은 나의 지나온 세월 중에 세상의 명예가 좋아 그 후광효과를 누리며 감투(?)를 즐겼던 때...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감투의 자리가 짐스럽고 그 짐이 주객을 전도시키는 감투라는 것을 알고 그런 감투에 아무런 욕심도 없이 자유로워졌음에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은 "COVID-19" 세계적인 질병의 전파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그 어느 때 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 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기를 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서이어서 참 행복하다. 독서모임을 후원하는 단체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최고은

어렸을 때 읽었던 고전 천로역정은 상당히 장황하고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했었는데 이번에 접하게 된 두란노에서 나온 천로역정은 마치 연극을 보듯 리얼한 대사들로 채워져서 읽고 이해하기 쉬웠다. 다만, 그 속 뜻에 대해서는 성경말씀을 참고하며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쓰여 있다. 천로역정은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순례자의 이야기이며,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이야기와도 같다. 수 많은 방해꾼들로 인해 번민하게 되는 것이 인생 자체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나의 자유를 절제하며 산다고 하면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소신' 즉, '소망'을 품고, 구원, 생명, 보호, 기쁨이 되는 십자가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최선이다. 때때로 위로되는 전도자나 분별, 신중, 경건, 자비 등을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 나태, 거만, 허례, 위선, 겁쟁이, 불신, 불량, 맹목, 악의, 호색, 방탕, 무모, 거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빛 혐오, 완강 등과 동행하게 된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 그 은총을 사모해야 가능하다. 때로 위로가 없어도 환란과 고난에서 참아내야 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바라는 것, 그 인내심이 요구된다는 걸 배웠다. 죽음의 육신을 벗어던지고 감사와 황송함으로 천성가는 날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해야겠다.